

주담대 이자 깎아주는 ‘안심전환대출’, 영끌족엔 희망고문?

평균 연 3~4%대 금리 이용 가능
4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대상
수도권 아파트 차주 해당 어려워



서울 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상담하고 있는 모습. /뉴스시스

고정금리 전환과 대한대출이 추진되지만 저가 주택 소유자와 소상공인만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하는 사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변동형 주담대를 고정형 주담대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한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으로 우대형과 일반형 2가지를 제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집값이 각각 9억원, 4억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형은 소득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우대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각각 5억원, 2억5000만원이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저렴하다. 5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4.1~4.4%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안심전환대출 일반형은 이보다 0.1%포인트, 우대형은 0.3%포인트 낮게 공급할 계획으로, 평균 연 3~4%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평균 7%에 육박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4%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

회를 4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 저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우선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총 공급액이 20조원으로 제한되어 집값이 낮은 순부터 전환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서울 강북권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억원, 강남권은 15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비싼 서울 소재 주택 보

유자는 해당 지원을 받기 어렵다. 9억 이하 주택 소유자는 내년을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저가 주택 소유자에게 우선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그 신청자를 소화하고도 재원이 남는다면 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에게도 안심전환대출의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2015년에 시행된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에도 한도가 20조원으로 설정됐지만 출시 며칠만에 모두 소진된 바 있다. 특히 금리인상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 소유자는 안심전환대출 가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금리 대한 대출’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고금리인 2금융권 대출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 중소기업 대출로 갈아타는 7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한 대출’을 도입할 방침이다.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7% 이하로 낮춰줄 방침이다.

현재 제2금융권인 카드회사와 저축은행 등 평균 대출금리가 연 13~14% 수준이지만 은행 중소기업 대출로 갈아타면 연 6~7%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대한대출 가입조건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대출금을 90일 이상 갚지 못했거나 영업 회복세가 상환 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해 향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차주다. 부동산·도박·향락 등의 업종과 체납이 빈번한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수도권 아파트 차주는 안심전환대출에 가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외국인 고객, 일요일 영업점 방문하세요”

우리은행, 영업점 운영·예약 진행

우리은행은 외국인 고객의 편리한 은행 업무 지원을 위해 ‘외국인 일요일영업점 방문 예약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평일 은행방문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안산, 의정부, 광희동, 김해, 발안 등 총 5곳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외국인 일요일영업

점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일요일영업점 방문 예약 서비스’는 ▲방문 영업점 ▲방문 날짜 ▲금융업무를 예약하고, 은행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은행 모바일웹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추후 외국인 전용 앱인 ‘우리글로벌뱅크’에도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생명, 1분기 순이익 2697억... ‘급감’

전년 동기 대비 8184억 줄어
“지난해 특별배당 기저효과”

삼성생명(13일)은 지난 13일 기업설명회(IR)를 통해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269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81억원) 대비 8184억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삼성전자 특별배당에 의한 기저효과 및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변액보증준비금 손실 확대에 따른 결과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작년 1분기 순이익(1조881억원)에서 삼성전자 특별배당이 6470억원을 차지했다”면서 “기저효과 등을 제외하면 작년보다 나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장래 이익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계약 가치는 1분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470억원) 대비 15.4% 증가했다.

신계약 가치는 보험계약 체결 후 전체 보험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계산해 장래이익으로 환산한 가치를 의미한다. 금리 상승과 더불어 건강상품 비중을 확대하고, 영업효율이 개선된 영향이다. 자산운용이익률은 신규투자이원 개선 및 매각의 적기 실현 등에 힘입어 3.6%를 기록했다.

3월 말 기준 총자산은 328조1000억원, 자본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급여력(RBC)비율은 246%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청정의고장
청정고추의 고장
청정사과의 고장

**대한민국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재배 생산되는 영양청결고추**

남영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명술

우리은행-캠코 유동성 부족 기업 정상화 ‘맞손’

자산 매입 후 임대 활성화 업무협약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3일 협약식에는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활성화와 금융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산 매입 후 임대’는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매입해 기업에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매각대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지원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을 적극 제공해 보다 빠른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



이원덕 우리은행장(오른쪽)과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고 있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고용 유지·확대 및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양사의 시너지를 창출해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DGB대구銀, ‘뱅크샐러드’ 대출상품 입점

DGB대구은행은 데이터 기반 개인 자산관리서비스 업체인 뱅크샐러드의 대출금리비교서비스에서 IM직장인 간편신용대출과 DGB쓰담쓰담간편대출 이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IM직장인 간편신용대출은 최대 1억 8000만원까지 필요한 대출은 은행 방문 없이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비대면 서류제출을 활용하여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로 6개

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며, DGB쓰담쓰담 간편대출은 최대 3백만원 한도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용자도 비상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DGB대구은행의 대표 신용대출상품이다.

/구남영 기자